

유학생 작가 염상섭의 초기 문단활동과 여성주의 : 「제야(除夜)」를 중심으로

金 榮敏

I. 들어가며

염상섭의 초기 산문들을 정밀히 읽고나면, 그가 지닌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지대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염상섭이 초기 산문 전반에 걸쳐 드러낸 가장 큰 관심사는 여성문제였고, 그가 초기 산문을 통해 제안했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자유의 획득과 해방의 실현이었다. 자아의 각성과 개성의 발견 및 실현이라는 명제 또한 결국은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해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제안된 것들이다. 염상섭이 다양한 산문들을 통해 조선 여성의 삶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한 이유는 그가 설정한 자유와 해방이라는 삶의 목표와 관련이 깊다. 조선의 여성들이야말로 자유와 해방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노동자의 구차한 삶에 대한 관심 또한 이와 맥을 같이 한다. 염상섭은 조선에 산재한 여성문제 해결의 길이 단지 여성 자신의 각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성이 가능한 사회적 여건의 조성에도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노동 문제에 대한 해결의 길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런 점에서, 염상섭에게는 조선의 여성문제와 조선의 노동문제가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함께 묶일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염상섭이 산문에서는 여성의 자아 각성과 자유로운 삶에 대한 지향을 주장했던 것과 달리, 소설에서는 가부장적이고 여성에 대한 혐오주의적 태도를 보인다는 해석 또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염상섭의 작품 중 신여성의 삶을 다룬 몇몇 작품들에 대해서는 논자별로 평가가 엇갈리는데, 그렇게 평가가 엇갈리는 대표적 작품 가운데 하나가 「제야(除夜)」(『개벽』, 1922. 2 - 6)이다. 이 논문은 염상섭의 초기 문학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제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II. 연구사와 문제의 제기

염상섭 연구의 선편을 잡았던 김종균의 「제야」에 대한 평가는 호의적이지 않다. 김종균은 「제야」의 여주인공 정인이 ‘윤리 도덕관의 혁신과 현사회의 신임을 얻는데 모두 실패한 신여성’의 전형으로 정리하고, 「제야」는 그 오산(誤算)의 구렁텅이에서 헤매는 여성들을 계도하기 위해 쓴 작품으로 해석한다. 「제야」가 지닌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연구자는 김윤식이다. 염상섭이 「만세전」을 통해 비로소 한 사람의 작가가 되었다고 말할 때, 「만세전」에 이르는 길에 「제야」가 있음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김윤식의 견해이다. 다만, 김윤식이 「제야」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종균과 다르지 않은 점은, 이 작품에 염상섭의 이른바 여성혐오증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보영은 「제야」가 지닌 가치를 가장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높이 평가한 연구자이다. 「제야」가 한국 페미니즘 문학의 고전으로 남게 되리라는 것이다.

기존의 논의들을 염두에 둘 때 우선 살펴볼 문제는 「제야」의 창작 동인과 관련된 것이다. 그 가운데 비교문학적 관심사인 외래적 요인의 문제는 여러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제야」가 모델소설인가 그렇다면 그 모델을 어떻게 상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부수적인 것이기는 하나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제야」의 창작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구명하는 것

이다. 「제야」가 신여성에 대한 비판과 계도를 목적으로 쓴 것이라는 견해는, 염상섭에게서 나타나는 이른바 가부장적 태도와 여성혐오주의의 근원이 「제야」에 있다는 주장과 서로 통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제야」야말로 페미니즘 문학의 고전으로 남을 것이라는 견해와는 크게 상충된다. 그밖에 「제야」가 자연주의에 반하는 작품인가 혹은 이를 지향하는 작품인가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들, 「염상섭」의 초기 산문과 「제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 또한 물론 중요하다.

III. 「제야」와 각본(脚本) 「인형(人形)의 가(家)」

「제야」의 창작 동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외국문학 작품과의 연관성을 거론하고 있다. 김윤식은 「제야」에 직접 영향을 미친 작품으로 일본의 근대 작가 아리시마 타케오(有島武郎)의 「돌에 짓눌린 잡초」를 지목한 바 있다. 이보영은 도스토예프스키가 창조한 인물 카라마조프와 입센의 희곡 「인형의 집」의 영향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제야」에는 ‘노라’라는 인물에 대한 언급이 두 번 나온다. 이보영은 이 점에 착안해 「제야」와 「인형의 집」의 연관성에 대해 거론한 것이다. 서종택은 「제야」가 졸라의 작품 「나나」를 상기시킨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제야」는 「인형의 집」의 한두 구절을 인용하는 데 머무른 작품이 아니다. 앞으로 증명해 보이겠지만, 「제야」는 「인형의 집」의 기본적인 이야기 전개 구도를 차용한 작품이다. 「제야」는 창작 의도와 서사구조 등에서 「인형의 집」으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았다. 그렇다면 염상섭은 어떠한 계기로 입센의 희곡 「인형의 집」을 읽고, 그 결과 「제야」라는 작품을 구상하게 되었을까? 염상섭이 처음 「인형의 집」을 접한 것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¹⁾ 그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이 작품을 읽은 것은 「제야」를 쓰던 해인 1921년으로 추정된다.²⁾ 1921년 1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매일신보』에는 입센의 희곡 「인형의 집」이 ‘각본(脚本)’이라는 양식 표기와 함께 「인형(人形)의 가(家)」라는 제목으로 연재되었다. 이듬해인 1922년, 「인형의 가」가 두 종류의 단행본으로 출간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³⁾ 이 작품은 당시 대중적으로 적지 않은 관심을 끌었던 것으로 보인다. 『매일신보』 연재본 「인형의 가」는 양백화(梁白華)와 박계강(朴桂岡)의 합역(合譯)으로 발표되었다. 『매일신보』는 입센의 이 작품이 ‘부인문제의 성서’로 일컬어지는 작품이라고 소개한다. 그런데 이 광고 문안에는, 원래 『매일신보』가 작품의 번역을 기획한 것이 아니라 『신여자』사(社)의 의뢰를 받아 양백화와 박계강이 작품을 번역한 것이라는 사실이 명기되어 있다. 『신여자』는 1920년 3월 김일엽에 의해 여성 계몽운동을 목표로 창간된 잡지이다.

『매일신보』 연재 각본 「인형의 가」에 대해 염상섭이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고 추정하게 되

* 이 발표문은 본 발표자가 최근 발표했거나 발표 예정인 다음 세 편의 논문을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본 발표문은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각주를 대부분 생략했습니다. 인용의 경우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염상섭 초기 산문 연구」, 『대동문화연구』 제85집, 2014. 461 - 497쪽.

김영민, 「염상섭 초기문학의 재인식 : 「제야」 연구」, 『사이』 제16호, 2014, 155 - 188쪽.

김영민, 「관념의 계몽주의 - 이광수 초기 소설 연구」, 발표지 미정.

1) 참고로, 일본에서는 1910년대에만 이미 여섯 권의 번역서가 간행될 만큼 「인형의 집」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따라서 염상섭이 일본 체류 중 이미 이 작품을 접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인형의 집」의 번역 상황에 대해서는 김재석, 「1920년대 「인형의 집」 번역에 대한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제36집, 2012, 12쪽 참조.

2) 「제야」는 1922년에 발표된 작품이지만, 염상섭이 이 작품을 집필하기 시작한 것은 1921년이다.

3) 1920년대 국내에서는 입센의 「인형의 집」이 세 번 번역되었다. 첫 번째가 『매일신보』 연재본 「인형의 가」이다. 두 번째는 이 연재본을 수정해 간행한 단행본 『노라』(영창서관, 1922)이다. 세 번째는 이상수 역으로 간행된 『인형의 가』(한성도서, 1922)이다. 판본 비교에 관한 더 상세한 논의는 김재석, 앞의 글, 13쪽 참조.

는 근거는 우선 「인형의 가」의 삽화를 나혜석(羅蕙錫)이 그렸다는 점에 있다. 연재 각본 「인형의 가」 마지막 회에는 입센의 원본 회곡에 없는 노래가 한 곡 실려 있다. 이 노래의 가사를 지은이가 나혜석이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혜석은 「인형의 가」를 교열해 출간한 단행본 『노라』에도 「노라」라는 시를 수록했는데, 이 시는 앞의 연재본에 실린 것과는 가사가 많이 다르다.

염상섭이 일본에 유학하던 시절, 1910년대 중반 이후 주로 머물렀던 삶의 근거지는 교토를 포함한 관서(關西)지역이었다. 도쿄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내던 염상섭에게 원고를 청탁하고 유학생 문단으로 불러낸 인물이 나혜석이었다. 염상섭은 나혜석이 편집에 관여하던 유학생 잡지 『여자계』 제2호에 산문을 발표하면서 문필 생활을 시작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염상섭과 나혜석의 교류가 시작된 시기를 염상섭이 게이오대학으로 진학한 1918년 봄 무렵으로 추정하고 있다.⁴⁾ 그러나, 두 사람 사이의 교류는 이보다 훨씬 더 빠른 시기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염상섭과 나혜석의 교류는 나혜석의 오빠 나경석⁵⁾을 매개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교류가 시작된 시기는 나혜석이 도쿄에 도착해 사립여자미술학교에 입학한 시기인 1913년 무렵으로 보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립여자미술학교 학적부에 기재된 나혜석의 주소가 당시 도쿄의 마포중학(麻布中學)에 다니던 염상섭의 주소와 일치하기 때문이다.⁶⁾ 나혜석의 유학이 오빠 나경석의 주선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나경석이 자신의 여동생이 머물게 될 주소지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한국인 유학생 염상섭의 존재를 몰랐을 가능성은 없다. 염상섭과 나혜석 그리고 나경석 사이의 교류는 이들이 각각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까지도 지속되었다.

나경석·나혜석 남매와 교류를 지속하던 염상섭이, 나혜석의 삽화가 실린 『매일신보』 연재물 「인형의 가」에 특별히 관심을 가졌으리라는 추정은 그리 무리한 것이 아니다. 염상섭은 일시적으로 나혜석을 연모했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염상섭은 입센의 「인형의 가」를 읽는 데만 그치지 않고, 한걸음 더 나아가 이를 활용해 작품을 구상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게 된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작품이 바로 「제야」이다. 「인형의 가」를 바탕으로 나혜석이 그림을 그리고 한 편의 시를 썼다면, 이를 바탕으로 염상섭은 한 편의 소설을 구상했던 것이다.

「제야」에는 「인형의 가」의 구체적 줄거리를 염두에 두고 사용된 문장이 두 번 나온다. 첫 번째 문장은 “「노라」는 男便을 살려 노코, 奇蹟을 바랐지만, 나는 男便될 사람의 要求를 満足시켜노코, 奇蹟이 나타나라고 祝數하고 안졌습니다.”⁷⁾이다. 두 번째 문장은 “노라의 借用證書를 스토-프에 불지른 뒤의 헬머-의 깃분어었습니다.”⁸⁾이다. 이 두 문장은 「제야」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이들 문장의 의미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인형의 가」의 줄거리에 대한 선행 이해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야」에는 이들 문장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이는 독자들이 「인형의 가」의 줄거리를 알고 있다는

4) “廉想涉이 東京 유학시절에 羅蕙錫과 교류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거나, 그 시기는 대략 廉想涉이 게이오대학으로 진학한 1918년 봄 무렵으로 추정된다.” (김경수, 「1차 유학시기 염상섭 문학 연구」, 『어문연구』 제38권 2호, 2010, 297쪽.)

5) 나경석의 연보에 대한 자세한 정리는 나경석, 『공민문집(公明文集)』, 정우사, 1980, 260 - 263쪽 참조.

6) 두 사람의 학적부 원본은 하타노 세츠코 지음, 최주한 역, 『일본 유학생 작가 연구』, 소명출판, 2011, 589쪽 및 616 - 617쪽 참조.

7) 염상섭, 「제야」 제3회, 『개벽』, 1922. 4, 47쪽.

8) 염상섭, 「제야」 제5회, 『개벽』, 1922. 6, 46쪽.

전제 아래 염상섭이 「제야」를 쓰고 있다는 사실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한 전제가 무리한 것이라 할지라도, 염상섭이 「제야」를 쓰면서 「인형의 가」의 존재를 계속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제야」의 정인이 남편 A의 전부인(前夫人)의 가출에 대해 언급하며 그녀가 더 이상 ‘귀군의 품에 안식을 구하는 아릿다운 비둘기’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⁹⁾, 「인형의 가」의 노라가 자신이 더 이상 남편의 ‘종달새’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인형의 가」와 「제야」의 이야기 전개 구조는 동일하다. 「인형의 가」와 「제야」는 모두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제야」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남편이 여주인공 정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인형의 가」에서도 크리스마스 주간에 배달된 편지는 파국을 향해가는 중요한 매개물로 작용을 한다. 「인형의 가」의 노라와 「제야」의 정인은 모두 남편에게 비밀로 숨겨둔 과거가 있는 여주인공들이다. 노라의 비밀은 그녀가 남편의 병구완을 위해 돈을 빌리면서 아버지의 서명을 위조한 것이고, 정인의 비밀은 그녀가 남편과 결혼하기 이전에 임신을 했다는 것이다. 노라와 정인의 과거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노라와 정인은 모두 ‘부도덕한 여자’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가부장적 권위를 중시하는 노라의 남편 헬메르는 ‘일찍 인생을 망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어머니가 거짓말쟁이’였다는 편견을 내세워 거짓말쟁이는 어머니도 아내도 될 수 없다는 발언을 하기도 한다. 두 작품의 여주인공들은 남편이 자신들의 과거를 용서하는 ‘기적’을 기대한다. ‘기적’이라는 단어는 「인형의 가」에서도 「제야」에서도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어휘이다. 「인형의 가」의 노라와 「제야」의 정인이 행한 과거는 모두 남편의 사회적 지위와 그에 따른 위신의 추락을 감수해야 하는 일들이다. 그녀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남편이 감싸 안고 고통을 함께 나누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그러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결국 그녀들은 과거가 드러나게 되자 남편에게 비난 받고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그런데, 두 작품의 스토리는 결말로 가면서 갑자기 반전된다. 모두 남편들의 갑작스러운 ‘용서’ 선언이 이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남편의 용서 선언에 대한 노라의 반응은 가출이고, 정인의 반응은 자살로 나타난다. 두 작품의 여주인공이 처음에는 모두 남편의 용서를 갈구하지만, 결국은 모두 그 용서를 거부하고 자신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모델 없이 작품을 쓰기 못하는 염상섭의 창작방법’을 들어, 염상섭이 한 때 연모하던 나혜석이 「제야」의 여주인공 정인의 실제 모델이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이 작품이 나혜석을 모델로 한 작품이라는 견해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IV. 「제야」의 창작 의도

염상섭의 초기 삼부작 가운데 지금까지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작품은 「표본실의 청개고리」이다. 「표본실의 청개고리」가 주목 받은 이유는 이 작품이 염상섭의 이른바 처녀작이면서 지식인의 정신적 고뇌를 깊이 있게 드러냈다는 점 등에 있다. 「표본실의 청개고리」를 발표할 무렵의 염상섭은 이미 평론가로서 문단에서 자리를 잡은 상태였다. 따라서 그가 『개벽』에 소설을 발표했다는 것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세간의 관심을 끄는 일이었다. 염상섭과 비평이론 논쟁을 벌이던 김동인조차도 그의 소설가 등단에 대해서는 반가운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염상섭 자신은 「표본실의 청개고리」에 대해 처녀작으로서의 의미를 그리 크게 부여하지 않는다.¹⁰⁾ 「표본실의 청개고리」가 이른바 염상섭의 처녀작이자 출세작이라는

9) 염상섭, 「제야」 제1회, 『개벽』, 1922. 2, 41쪽 참조. 방점도 원문대로임.

평판에도 불구하고, 염상섭은 초기 삼부작을 모아 자신의 첫 단편집 『견우화(牽牛花)』를 내면서는 그 배열의 순서를 「제야」와 「암야」, 그리고 「표본실의 청개고리」로 정한다.

「제야」는 「표본실의 청개고리」와 「암야」에 비해 처음으로 대상 세계를 객관화시켜 다루기 시작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제야」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평가는 이 작품이 「만세전」으로 가는 길목에 놓여 있는 작품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제야」를 단순히 「만세전」을 위한 징검다리만으로 이해한다면 이는 염상섭 작품의 깊이를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만세전」이 염상섭 소설의 새로운 경지를 연 작품이라면, 「제야」는 염상섭의 초기 문학을 집대성하고 마무리짓는 작품이다. 염상섭은 「부인의 각성이 남자보다 긴급한 소이」를 발표한 이래 「머리의 개조와 생활의 개조」(『여자시론』, 1920. 1), 「여자 단발문제와 그에 관련하여 - 여자계(女子界)에 여(與)함」(『신생활』, 1922. 8) 등 여러 편의 산문들을 통해 여성의 자아실현과 그 실현이 가능한 사회적 여건 조성의 필요성을 주창한 바 있다. 등단 초기에 풍속 개량과 가치관의 개조를 반복 주장한 염상섭이 「제야」라는 작품을 집필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견우화』의 서문에는 「제야」에 대한 염상섭의 언급이 실려 있다. 「제야」에 대해 염상섭은 이 작품이 “자살에 의하여 자기의 정화(淨化)와 순일(純一)과 소생(甦生)을 얻으려는 해방적 젊은 여성의 심적 경로를 고백한 것”¹¹⁾이라고 언급한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언급에 앞서 염상섭이 『견우화』라는 작품집의 표제가 ‘야차(夜叉)의 마음을 가진 보살(菩薩)’을 의미하는 것임을 밝힌 바 있다는 점이다. 「표본실의 청개고리」와 「암야」, 그리고 「제야」라는 초기 삼부작에는 모두 자기모순과 자기분열에 번뇌하는 인물형들이 등장한다. 그 가운데 야차와 보살의 마음을 지닌 인간이라는 성격 규정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인물은 단연 「제야」의 최정인이다. 누구의 자식인지도 모를 아이를 임신한 채로, 아버지의 강요에 못 이겨 남편과 혼례를 치러야 하는 정인의 삶은 야차와 같은 암흑에 둘러싸인 삶이다. 그녀는 자살을 통해 정화(淨化)와 순일(純一)과 소생(甦生)을 얻게 되는데, 염상섭은 죽음을 맞이하는 정인의 모습에 보살의 그림자를 투영시키고자 의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야차와 보살이 공존하는 삶에 대한 염상섭의 인식은 「제야」의 결말에서 정인의 자살 행위를 ‘두 생명을 구하는’ 행위로 서술한다. 그렇게 보면, 「제야」의 결말에 나오는 정인의 자살 장면은 과거에 대한 징벌이나 계도 혹은 단순한 과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야차와 보살에 대한 인식은 다소 난해해 보이는 「제야」의 결말을 이해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 이 작품의 창작 의도가 결코 ‘타락한’ 신여성 정인에 대한 징벌에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야」의 창작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작품의 서두와 마무리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제야」의 서두와 마무리는 각각 다음과 같다. (인용 생략) 이 두 인용문은 각각 작품의 가장 처음과 마지막에 나오는 문단이다. 그런데 이 두 문단은 그대로 이어서 읽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그 이유는 두 문단이 모두 정인의 죽음을 염두에 둔 서술이기 때문이다. 죽음은 절대적 종결이고 그 뒤에 오는 것은 단지 공(空)일 뿐이다. 그러나 죽음은 단지 허망한 것이 아니다. 거기에 영원한 안주(安住)와 절대적 해탈과 순수함과 신성(神聖)과 지선(至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인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죽음을 앞에 놓고 ‘나는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귀군의 품에 안기어, 영원히 삽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10) 염상섭, 「처녀작 회고담을 다시 쓸 때까지」, 『조선문단』, 1925. 3. (『염상섭 문장 전집』 제1권, 348 - 349쪽 참조.)

11) 염상섭, 「자서(自序)」, 『견우화』, 박문서관, 1924. (『염상섭 문장 전집』 제1권, 277쪽.)

것은 죽음의 의미에 대한 첫 문단의 서술이 있었기 때문이다. 죽음이 정인에게 받아들여야 할 운명이기는 하지만, 그 의미가 징벌이 아니라는 것은 여기에서도 새삼 드러난다.

「제야」의 주인공 정인에 대한 염상섭의 태도를 결코 혐오적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정인의 이른바 실패한 삶을 통해 신여성을 계도하려 했다는 주장 또한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그보다는 오히려, 한 여성에게 강제된 결혼이라는 가족제도가 그녀를 어떻게 고통 속에 몰아넣고, 어떻게 가족과 이별하게 했는가를 그려냈다고 보는 것이 옳다.

현실주의자였던 염상섭에게는 「제야」에서 다른 결말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었다. 염상섭은 「제야」에서 주인공 정인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 작품이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읽힐 가능성에 대해 크게 경계했다. 「제야」의 정인은 연인 E와 독일로 도망갈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부산행을 선택했을 때 자신의 행위가 ‘활동사진(活動寫眞)이나 통속소설(通俗小說)을 실연(實演)하는 것 같아’ 스스로 처량해지기도 하고 웃음이 나기도 한다. 여기서 자신의 행위가 통속소설로 읽히지 않아야 한다는 자의식은 주인공 정인의 것이기에 앞서 작가 염상섭의 것이었다. 염상섭은 정인이 연인 E와 독일로 도피하는 것도, 그가 남편의 ‘용서’를 받아들여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도 실제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표본실의 창개고리」에서 다소 맹아를 보이던 염상섭의 자연주의적 태도가 「제야」에서 소멸되고 있는가 혹은 확산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 또한 이 작품의 결말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인용한 바 있는, 정인의 유서는 실질적으로는 “두 生命은 求하여 것습니다.”¹²⁾ 라는 문장으로 끝이 난 것이다. 이 문장은 그녀가 죽음을 통해 저주받은 어린 생명의 생애를 구하고, 또한 남편의 명예를 지킬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뒤에 “…… 貞義를, 崔哥의 罪에서, 求하여주시옵소서.”¹³⁾라는 짧은 구절 하나가 덧붙여 있다는 점이다. ‘정의(貞義)’는 정인의 여동생이다. 정인은 자신의 삶을 마무리 하면서, 자신의 여동생은 자신과 같은 길을 가지 않기를 소원한다.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염상섭이 정인의 삶의 경로에 영향을 미친 요소로 ‘최가의 죄’ 즉 유전적 요인을 크게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인은 남편에게 자신이 ‘소실이 들이나 되는 아버지’와 ‘과륜적(破倫的) 성적밀행(性的密行)에 대하여 괴이한 흥미와 습성을 가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란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고 발언한다.¹⁴⁾ ‘어머니는 나를 배고 정부(情夫)에게로 도망(逃亡)하여 왔지만……’¹⁵⁾하는 구절이나 ‘그 덕택으로 나의 행동은 어려서부터 일호(一毫)의 감독(監督)과 지도(指導) 없이 완전한 자유(?)를 가졌습니다’¹⁶⁾라는 문장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생의 미래를 걱정하는 「제야」의 결구(結句)는 염상섭이 유전과 환경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이 작품을 구상하고 전개해 나가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 마지막 구절 하나만으로도, 「제야」에 반영된 염상섭의 자연주의적 성향의 깊이를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앞에서 정인이 왜 자신의 죽음을 ‘생명을 구할 책임’을 실현하는 행위로 서술했는가 하는 점도 명확해진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최가의 죄’가 전해지는 일을 멈출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더불어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개벽』 연재본에는 없는 또 하나의 문장이 단행본 『견우화』 속 「제야」에 추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단행본 속 「제야」

12) 염상섭, 「제야」 제5회, 『개벽』, 1922. 6. 47쪽.

13) 염상섭, 「제야」 제5회, 『개벽』, 1922. 6. 47쪽.

14) 염상섭, 「제야」 제1회, 『개벽』 1922. 2, 46쪽 참조.

15) 염상섭, 「제야」 제5회, 『개벽』, 1922. 6, 42쪽 참조.

16) 염상섭, 「제야」 제1회, 『개벽』 1922. 2, 47쪽 참조. 부호도 원문에 있는 것임.

는 이렇게 끝을 맺는다. “이것이 마즈막 부탁입니다.”¹⁷⁾ 염상섭은 『개벽』 연재본 「제야」를 교열해 단행본으로 출간하면서 ‘이것이 마지막 부탁’이라는 새로운 구절을 추가해, 여동생 정의를 최가의 피에서 구하는 일이 정인의 간절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V. 「제야」와 초기 산문(散文)의 관련성

「제야」와 짝을 이루는 염상섭의 산문을 하나 택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지상선을 위하여」가 된다. 「제야」가 염상섭의 초기 소설 세계를 대표한다면 「지상선을 위하여」는 그의 초기 산문 세계를 대표하는 글이다. 「지상선을 위하여」는 「제야」와 마찬가지로 「인형의 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염두 두고 집필한 글이다. 이 글의 서두는, 「인형의 가」에서 노라가 남편의 곁을 떠나겠다고 선언하는 장면의 직접 인용으로부터 시작된다. 염상섭은 노라의 선언이 ‘수많은 여성을 위한 만장(萬丈)의 기염(氣焰)이며 전 인류에 대한 경고’라는 견해를 드러낸다. 이어서 염상섭은 ‘신장하는 영혼의 생명은 반역에 있고, 일체의 구(舊)에 대하여 반기를 올리고 ‘신(新)’을 향하여 매진’해야 함을 주장한다. 「지상선을 위하여」에서 반기를 들어야 할 과거를 상징하는 것은 금일의 가족제도이다. 그는 “기계화한 도덕의 청수(淸澆)로 장식한 전통 위에 형성한 바, 관념의 사생아, 전제주의의 잔해가, 곧 금일의 가족제도가 아닌가.”¹⁸⁾라고 질타한 후, 가족제도가 더 이상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언한다. 염상섭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말로 가족제도에 대해 비판한다. (인용 생략) 전통적 가족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가부장적 권한의 남용을 비판한 것은 염상섭이 처음이 아니다. 하지만, 금일의 가정의 모습을 노예적 굴종과 도호적 타협, 위선적 의리, 감금, 질타, 매리, 오인, 원차 등 수많은 부정적 수식어를 동원해 ‘죄악의 소굴’로 단정한 경우는 흔하지 않다. 각본 「인형의 가」와 소설 「제야」, 그리고 산문 「지상선을 위하여」는 서로 간섭하는 텍스트이다. 「인형의 가」와 「제야」의 줄거리를 염두에 두고 「지상선을 위하여」를 읽을 때, 이 글의 진의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 「지상선을 위하여」는 염상섭의 산문 가운데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개성과 예술」(『개벽』, 1922. 4.)에 담긴 주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킨 글이다. 「개성과 예술」에서 주장하던 인간의 ‘자아 실현과 개성 표현’이라는 명제는 「지상선을 위하여」에서 더욱 구체화된다. 염상섭은 자아의 완성 혹은 자아의 실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벽을 부(父) 혹은 가장(家長)의 권위에 기대는 현 사회의 가족제도로 설정한다. 「지상선을 위하여」의 마지막 구절은 “노라와 같이 타협하지 마라. 이것이 지상선을 위한, 자아실현을 위한 제1잠언이다.”¹⁹⁾이다. 염상섭은 이렇게 「인형의 가」의 노라에게 타협하지 말 것을 권고함으로써, 그녀의 가출을 지지하는 자신의 입장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다. 이는 이광수가 「노라야」를 통해, 노라에게 가정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던 것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태도이다.²⁰⁾ 그렇다면 그는 「제야」의 정인을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17) 염상섭, 「제야」, 『견우화』, 박문서관, 1924, 103쪽.

18) 염상섭, 「지상선을 위하여」, 『신생활』, 1922. 7. (『염상섭 문장 전집』 제1권, 209쪽.)

19) 위의 글, 224쪽.

20) 그런가 하면, 이광수의 언급에는 ‘개성의 해방’에 대한 오해를 지적하는 구절이 있다. 이를 통해 이광수와 염상섭이 차별화되는 지점이 어디인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흥미롭다. “그런즉 노라야, 다시 네 남편에게로 돌아오너라, 그래서 새로운 意味에서 얌전하고 귀여운 안해가 되고 어미가 되어라 …(중략)… 노라의 소리에 불려나온 우리 누이들은 지금 甚히 思想이 惑亂한 모양이외다. 그네는 걸핏하면 男女의 差別을 닛고 男子와 同化함으로만 個性의 解放을 完成하는 것가티 誤解하야 그 天職인 家庭의 治理와 夫와 子女에게 對한 愛의 生活을 버리고 工場과 會社와 選舉場에 돌아다니기로 目的을 삼는 것 가틈니다. 더욱이 方今 눈비비고 날어나라는 우리집 姉妹들이 이러한 그릇된 思想에 浸染하는 듯함을 볼 새에 甚히 焦悶함을 마지아니합니

작가 염상섭은 여주인공 정인의 최후의 선택인 죽음이라는 행위를 설명하는 일에 ‘진순(眞純)’과 ‘신성(神聖)’과 ‘지선(至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 시기 염상섭이 매우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던 단어들을, 정인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을 변호하는 일에 쓸 수 있도록 배려했던 것이다. ‘신성(神聖)’은 나혜석이 시 「인형의 가」에서 노라의 가출을 옹호하기 위해 선택했던 단어이기도 했다.

VI. 마무리

염상섭의 여성인식 혹은 여성주의에 대한 태도가 산문과 소설에서 서로 차이가 난다는 지적은 옳지 않다. 그가 산문에서는 여성의 자아 각성과 실현, 그리고 개성을 구현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삶에 대한 지향을 주장했지만 소설에서는 일관되게 가부장적이고 여성에 대한 혐오주의적 태도를 보였다는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염상섭의 초기 산문에 나타난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여성문제였고, 「제야」는 이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접근한 염상섭 최초의 소설이다. 초기 산문의 최대 관심사를 작품화했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제야」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제야」가 과소평가된 이유는 이 작품을 이른바 타락한 신여성의 삶을 계도하기 위해 쓰여진 작품으로 이해하려 한 데 있다. 이러한 편견은 「제야」가 지닌 무게와 거기에 담긴 작가 염상섭의 사고의 깊이를 바로 보지 못하게 한다. 그가 초기에 관심을 지녔던 자연주의적 문학관 역시 이 작품에 매우 깊게 반영되어 있다.²¹⁾ 『개벽』 연재본에는 없는 마지막 한 문장이 단행본에 새롭게 추가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보아야 한다.

「제야」의 결말은 역설적으로 염상섭의 인간에 대한 애정과 삶의 다면성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염상섭은 야차 같은 삶을 살아온 인간에게도 보살의 마음이 숨겨져 있음을 작품의 결말에서 보여주고 싶어 했다. 정인이 야차 같은 혹은 그녀의 표현을 빌면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된 직접적 원인은 혼전 임신이라는 사건이다. 지옥 같은 삶에 대한 책임이 그녀에게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제야」에서 염상섭은 그보다 더 큰 책임, 더 근본적인 원인이 애정 없이 강요되는 혼인제도에 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한다.

「제야」에서 염상섭은 여주인공 정인의 삶을 결코 일방적으로 비난하지 않았다. 염상섭은 이른바 사회적 통념을 앞세운 비난의 목소리를 전달할 때마다 정인에게 언제나 변명의 기회를 주었다. 「제야」는 정인이 죽음을 앞두고 남편에게 써 보내는 서간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염상섭이 「제야」에서 선택한 서간체 형식은, 작가와 등장인물 사이에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비난에 대해 여주인공 정인이 자신을 스스로 변호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서술 형식이었다. 염상섭의 문학세계에서 「제야」가 차지하는 위상은 단순히 「만세전」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소설이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보다는 초기 산문의 최대 관심사를 작품화하고, 초기 삼부작에 투영된 인생관을 집약해 표현한 작품으로서의 독자적 가치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이광수, 「노라야」, 양백화 역, 『노라』, 영창서관, 1922.)

21) 다만, 정인의 삶에 대한 이해를 위해 자연주의적 시각을 도입한 것이 과연 효과적이었는가 하는 문제는 계속 과제로 남는다. 여성주의와 자연주의의 결합에 대한 비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